2014.9.17(수)	현 지 정 보	뉴욕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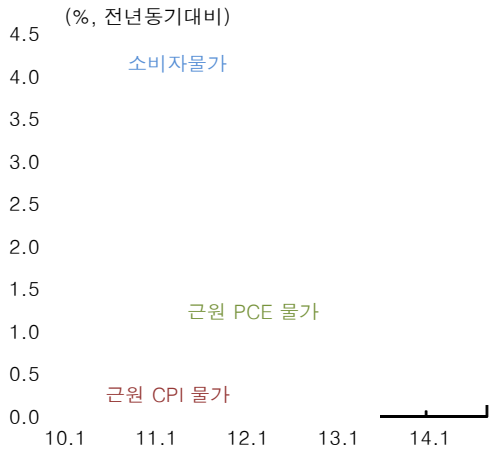
2014. 8월 미국 소비자물가 1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

□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가 2013.4월(-0.2%) 이후 처음으로 하락

- ㅇ 8월 CPI(9.17일 발표)는 시장예상치를 하회(+0.0%)하여 전월대비 0.2% 하락하였으며, 전년동월대비로도 1.7% 상승률에 그쳐 상승세가 약화(7월 1.9%)
- ㅇ 한편 8월 Core CPI도 시장예상치(+0.2%) 보다 낮은 전월수준(0.0%)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 10월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상승추세를 멈춤

소비자물가 상승률

소비자 및 근원물가 상승률



자료 : BLS

□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음식료품 및 집세 가격이 상승(각각 0.2%)하였지만 변동성이 큰 가솔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(2.6%)한 데 주로 기인

- ㅇ 그동안 서비스가격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집세가격은 상승하였으나 교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(0.6%)하고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(0.0%)된 상태
- ㅇ 가솔린($3.45(8.17일) → $3.37(9.16일), 갤런당) 가격이 크게 하락(4.1%)하고 에너지서비스 가격도 하락(0.6%)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

소비자물가 항목별 상승률 추이

(전월대비, 계절조정)

	2014년				
	4월	5월	6월	7월	**8월**
(총 항목)	0.3	0.4	0.3	0.1	**-0.2**
■ **식품**	**0.4**	**0.5**	**0.1**	**0.4**	**0.2**
■ **에너지**	**0.3**	**0.9**	**1.6**	**-0.3**	**-2.6**
• Energey commodities(가솔린 등)	**1.9**	**0.6**	**3.0**	**-0.3**	**-3.9**
• Energey services(전기, 가스)	-1.9	1.4	-0.4	-0.4	-0.6
■ 식품 및 에너지 제외(core)	0.2	0.3	0.1	0.1	**0.0**
■ 서비스(에너지서비스 제외)	0.3	0.3	0.1	0.1	**0.0**
• 집세	**0.2**	**0.3**	**0.2**	**0.3**	**0.2**
• 교통서비스	0.7	1.0	0.1	-0.7	**-0.6**
• 의료서비스	0.3	0.3	0.0	0.1	**0.0**

□ 시장에서는 금번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물가수준이 연준의 목표 수준(Core PCE 물가 2%)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커짐*에 따라 FOMC 의결문에서 "considerable time"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평가(Credit Suisse, Bloomberg 9.17일)

* 동 추세를 유지할 경우 Core PCE(전년동월대비)가 7월 1.5%에서 8월 1.4%로 하락하여 연준의 목표 수준에서 다소 멀어질 것으로 전망

○ FOMC 의결문에서 동 문구를 삭제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2015.3월 최초 금리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물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연준이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서두르게 하지 않을 것임

— 한편 금번 물가보고서가 예상을 크게 하회('magnitude of the miss in today's data CPI report)한 것이 정책스탠스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 FOMC 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(JP Morgan, 9.17일)

○ 금번 소비자물가 하락은 향후 완만한 물가상승세(tame inflation)가 지속되고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평가도 제기(Citi, 9.17일)